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열왕기하 4:8-11, 14-16- | 제2독서 | 로마서 6:3-4, 8-11 | 복음 | 마태오 10:37-42

◎말씀 < 십자가 공동체 >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뽑으시고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하시며 하신 당부들 중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십니다. 멀고 위험한 곳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무엇보다 복음과 명령에 충실함을 요청하십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일이 편하고 좋은 것들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일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편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보다 십자가의 무게와 복음의 명령을 더 가까이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번에 실천하기보다는 몇 번이나 고민하고 숙고하여 억지로 해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 속에 흔들리곤 합니다.

이런 어려움과 선택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떠나 십자가를 진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스스로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바를 자신이 앞장서 보여주십시오.

스승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 기댈 곳조차 없다.’ 라고 하셨지만 늘 불편하고 외롭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기꺼이 작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화복하게 복음을 실천해 내신 예수님께서서는 무식하고 약한 제자들을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수많은 작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예수님이 받을 상을 얻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할 때 우리들도 수많은 그리스도인 이웃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모두가 한 아버지 하느님을 모시고 산다는 공통의 믿음 안에 형제적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실천으로 신앙 공동체의 아버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특별히 기억하며, 교황님의 지향에 우리의 기도를 모아봅시다. ‘고통받는 이들이 생명의 길을 찾기를,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 성심께 기도합시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지난주 우리들 정성	
6월30일(화)	연중 제13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2,820.00 \$ 516.00
7월1일(수)	연중 제13주간 수요일		미사에물 성소후원	\$ 290.00 \$ 41.00
7월2일(목)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사회복지 성 물 방	\$ 39.00 \$ 0.00
7월3일(금)	성 토마스 사도 축일		기타수입	\$ 92.00
7월4일(토)	연중 제13주간 토요일		합 계	\$ 3,798.00
7월5일(일)	연중 제14주일	오전 9시 오전11시	미사참례자	학생: 0명 성인: 53명
교무금 봉헌자	민명규(10-12월)정태환(1-12월)진엘리사(7-8월)정영규(6-8월)김재선(5-8월)우순이(6월) 장성자(5-6월)전우성.김팔봉(4-6월)이상인(4-5월)지영욱(3-5월)최원숙(3-4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성사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도움을 주는 준성사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되새기기 위해 말이나 동작,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나 물건 등을 이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일곱 성사들 외에 교회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느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제정한 예식들이 있는데 이를 준성사(準聖事)라고 합니다. 준성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인 성사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사는 성사예식 행위 자체에 의해 은총을 받지만 준성사는 그 자체로서는 효력을 내지 못하며 교회가 중개자로 나서서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 정성에 따라 은총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성사는 기본적으로 축성(祝聖), 축복(祝福), 구마(驅魔)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축성’은 사람이나 물건을 하느님께 봉헌하여 성스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때, 성품성사 때, 주교 성성 때, 미사용 제구, 종, 축성 성유, 교회 묘지 등을 성스럽게 할 때 행합니다. 그런데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를 제외한 모든 축성은 주교님만이 할 수 있으며, ‘축성’에는 기쁨을 바르는 의식이 따르는데, 성유를 바르지 않는 수도자들의 서원 등은 ‘봉헌’이라고 표현합니다.

‘축복’은 사제가 사람들이나 성상, 성물, 성수, 초, 성지(聖枝), 재 등에 안수를 하든가 십자표를 하면서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간혹 ‘축복’과 ‘강복’을 혼돈하여 사용하는데 ‘축복(祝福)’이라는 말은 ‘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이라는 뜻이며

‘강복(降福)’은 ‘하느님께서 내려 주시는 복’이라는 뜻이므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십자고상이나, 목주, 성상 등을 구입해 사용하기 전에 ‘방사를 받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도 ‘축복’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악의 세력에 물들지 않고 마귀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도록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청하는 것을 ‘구마(驅魔)’라고 하는데 세례 때마다 사제는 구마기도를 통해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방시켜주시길 것을 청합니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공적인 구마의식은 교회의 엄격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비로소 실행되는데 교구장의 허가를 받은 사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준성사는 신앙과 봉헌의 정신으로 사용해야 하며 결코 미신적 행위의 대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 이용한다면 교회의 축복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능해지고, 우리의 행위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릴 뿐만 아니라 악마로부터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욱.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렛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김영복.마리아, 박호근프란치스코	이나숙.데레사	생	본당신부님	정의의모후
	김영수.베드로, 박년일.마르코 이화숙.요안나, 유성녀.데레사		생	김한모.바오로신부님 김상돈.도미닉부제님	윤태욱안나
연	서향자.글라라	정세연.도미니카	생	(감사)김상돈.도미닉부제 서품6주년	가족
연	서향자.글라라	이영숙.데레사			
연	서향자.글라라	아빌라데레사회	생	본당의 모든 신자들	윤태욱안나
생	본당신부님, 본당신자들	김상돈도미닉	생	김상돈.도미닉부제님	익명
생	본당신부님, 김도미닉부제님	사목회장단	생	셋별Pr.단원들	진엘리사
생	본당신부님	2구역	생	곽화근.요한	곽유경.데레사

간
장
중
지

◎사랑법◎
자물쇠로 끄꽂 잠그니 자페아인 아들은 자꾸 집을 나갔다. 할 수 없이 바깥에서 잠가보기도 했다. 그런데 웬일일까? 이제 새집을 지어 아예 자물쇠로 잠그지 않으니, 그는 나가지 않는다. 오히려 집을 지킨다. 어느 자페아 부모의 말에서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게스관광</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p>	<p>Suzie Hair World</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p> <p>Payee to: St.J.H.C</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미사 재개에 따른 미사시간
주일미사;일요일 오전9시.11시.성당
평일미사;화요일.목요일 오후7시30분.성당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세례명.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2.본당 소독봉사(매주 미사전후)
이번주:울뜨레아 다음주:사도들의 모후
- 3.본당신부님 영명축일
영명축일:29일(월) 축하식:28일(일)교중미사중
영적예물:묵주기도 5,755단 사제기도:3,599회
미사:256회 화살기도:1,840회 주님기도:42회
성체조배:5회 선행:2회 자비기도:20회
예수성심호칭기도:20회 9일기도:1회
김상돈부제님 서품기념일;28일(일)
축하드리며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4.주님!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서향자.글라라자매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24일)
연도 및 장례미사 일정은 추후공지합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5.감사합니다
새크라멘토한인회:\$92 (2020 인구조사 홍보)
- 6.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참가안내
인구조사 참가는 향후10년간 한인사회를 위한
자원조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1. 다음의 교우들은 본당 공동체 미사에 참여
하지않고, 가정에서 대승으로 주일미사참례
의무를 대신합니다.
 - 영유아와 그의 부모, 기저질환자, 노약자,
연로한 어르신 교우
 - 전염병 확산의 우려로 인한 가족의 반대로
미사 참석이 어려운 교우.
 -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에 참석하는 것에 심리적
으로 큰 부담감을 갖는 교우.
2.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
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주 님 의 자 애 를 영 원 히 노 래 하 오 리 다

전례봉사	연중제13주일(6월28일)	연중제14주일(7월5일)	연중제15주일(7월12일)	연중제15주일(7월19일)
해 설	최금주.요안나	김은선.제노베파	김선영.플로라	임상일.프란치스코
제1독서				
제2독서				
복 사	김규철.레오	송돈희.요셉	김규철.레오	박성호.요한바오로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